

디지털 선비를 양성하는 컴퓨터 특성화 대학, 동양대학교

최 성 해 | 동양대 총장

■ 디지털 선비 양성의 요람

'온고지신(溫故知新) 교육'

옛 것을 익히고 나아가서 새 것을 배운다.

예와 의리의 고장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 자리 잡은 동양대학교가 내세우는 교육이 바로 온고지신 교육이다. 이 교육은 이른바 '선비교육'이라 일컫는다. 선비는 우리의 전통적인 유교문화 바탕 위에서 곳곳이 학문을 닦는 신지식인을 말한다.

동양대학교 설립자 현암 최현우 박사가 풍기에 동양대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소수서원의 학풍인 선비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이다. 최현우 박사가 '90년대 초 경북의 조그만 도시 풍기읍에 동양대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밝히자 일부에서는 대구 등 대도시에 설립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최현우 박사는 고등교육의 불모지인 경북 영주지역에 '새 역사의 개척'이라는 창학이념을 갖고 1994년 경북 북부지역의 유일한 사립대학교인 동양대학교를 설립했다.

풍기역과 중앙고속도로 풍기 인터체인지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동양대학교는 캠퍼스 입구에서부터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학자수(소나무)'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캠퍼스 곳곳에는 선비 양성 교육기관이라는 뜻말이 눈에 띈다. 이런 독특한 교육 분위기 때문인지 전국에서 방문한 예비 수험생과

학부형들로 붐비고 있다. 전국 주요 대학 관계자들도 동양대학교를 방문해 선비교육 시스템을 연구할 정도다. 또한 선비정신을 재조명하기 위해 3년째 한·중·일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21세기 세계 가치관을 선도할 아시아적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서이다.

이 같은 선비정신에 입각한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 동양대학교는 '선비 21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선비상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유교문화에 바탕을 둔 인성과 정보화시대를 이끌어 갈 지식을 갖춘 인재인 디지털 선비를 키우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역 내의 기관, 학교, 사회단체로 이뤄진 '선비 네트워크'를 구성, 인성 빨리·문화 빨리·지식 빨리를 구축키로 했다. 또 유교학 학술사업을 추진할 유교학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인성을 키우고 전통 문화를 경험하는 문화 학술 프로그램 사업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 컴퓨터 특성화 대학교

동양대학교는 '특성화'라는 개념조차 생소하던 1995년 국내 최초로 '컴퓨터 분야 특성화 정책'을 발표해 많은 실효를 거뒀다. 동양대학교의 특성화 정책은 '동양의 MIT공대'를 겨냥한 것이다. 컴퓨



▲ '학자수(소나무)'로 꾸며진 아름다운 캠퍼스



▲ 교육목적에 맞는 이름으로 불리는 건물들

터 분야 특성화 대학이라는 슬로건답게 동양대학교는 재학생 1명당 1대의 컴퓨터가 보급돼 있다. 인터넷 기숙사는 동양대학교의 자랑이면서 특성화 모델이다. 각 방마다 LAN을 설치, 24시간 세계의 고급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98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가상대학 프로그램 실험대학에 선정돼 최첨단 위성 강의실을 설치하고 위성 강좌를 개설 중이며, 2000년에는 한국사이버대학(KCU)의 지역 거점 대학으로 지정되었다.

재단의 끊임없는 투자도 타 대학의 부러움이다. 동양대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시설과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캠퍼스 조성을 위해 지금 곳곳에서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다.

■ 3년 연속 교육개혁 추진 최우수 대학교

동양대학교는 이 같은 차별화 된 특성화 정책이 6년 만에 실효를 거둬 2000년 교육개혁 추진 최우수 대학교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01년, 2002년도에도 우수한 대학들을 제치고 3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지방 대학들의 위기 속에 이룬 쾌거였다.

또한 정보통신부가 우수한 정보기술(IT)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IT) 관련학과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대학교로 2년 연속 선정되었다.

2002년 동양대학교 IT관련학과 비중은 전체의 50%나 되며, 2004년까지 메카트로닉스공학, 인터넷산업공학 등 IT관련 인력 2,2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 정보기술(IT)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IT전문가 양성 과정은 컴퓨터 특성화 대학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마련된 동양대학교만의 프로그램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정보 기술 전문가를 배출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하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다.

대학 정규 교육을 바탕으로 자격증 취득교육, 그룹스터디, 프로젝트 운영, 세미나를 통한 실무교육, 어학 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단계를 통해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외 공인자격증 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IT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개설됐다. 동양대는 자격증 취득자 중에서 프로그램 참가자를 선발하고 졸업까지 장학금 지급과 함께 그룹스터디·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 IT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으로 최고의 전문가 양성

■ 5년 연속 85% 이상 순수 취업률 기록

컴퓨터 특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양대학교는 5년 연속 순수 취업률 85%를 상회해 경쟁력 있는 신홍 명문 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양대학교가 취업에 강점을 보인 이유는 사회적 요구에 맞는 특성화된 교과과정 개발, 영어·일어 등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수준 높은 교육 시설 등 네 가지이다.

동양대학교는 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 배출, 학생들의 사회 진출 활성화를 위한 모든 대학 행정 프로세스 및 취업 정보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취업 지도 모델인 주문식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중·장기 사업

으로 외국 대학과도 경쟁할 수 있는 효율적인 취업 시스템을 구축해 '취업 부문에서도 최우수 대학교'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4계절 동화 속 풍경이 연출되는 아름다운 캠퍼스

동양대학교는 한국대학신문에서 외국의 명문 대학처럼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



▲ 완벽한 지원 시스템이 갖춰진 취업정보 센터

는 '아름다운 캠퍼스 가꾸기 사업'에서 아름다운 캠퍼스로 선정되었다.

동양대학교는 '학자수 캠퍼스'라 할 만큼 캠퍼스 곳곳에 아름다리 소나무가 눈에 띈다. 소나무로 캠퍼스를 조성한 것은 예전에 서원에서 선비의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심고 '학자수'라 불렀듯이 소수서원의 학맥을 계승,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올곧은 인재 양성을 위해 선비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동양대학교 캠퍼스는 계절에 따라 독특한 멋을 느낄 수 있다. 수십만 그루의 연산홍과 자산홍이 어우러져 절정을 이루는 봄, 시원한 분수와 넓고 푸른 잔디 광장에서 음악과 함께 하는 여름, 노란 단풍과 국화 향기 그윽한 가을, 눈 덮인 소백산이 병풍처럼 드리워진 겨울. 이처럼 동양대학교 캠퍼스 사계절은 동화 속의 풍경이 연출된다. 특히 학자수와 어우러진 만여 평의 잔디밭 스포링클러에서 뿜어져 나

오는 물줄기와 캠퍼스 연못 곳곳에서 솟아오르는 분수는 장관을 이룬다.

동양대학교 캠퍼스는 특이한 점이 또 하나 있다. 대학 건물 하나 하나마다 제각각 특색을 살렸으며 건물마다 이미지에 부합하는 이름을 붙였다. 현모양처 신사임당을 본받으라는 뜻으로 명명된 여학생 기숙사 '사임당', 날마다 새로워지라는 뜻인 남학생 기숙사 '일신재', 주세붕 선생의 선비정신을 기린 '신재관'을 비롯해 현암관, 장인관, 장영실관, 다산관 등 각 건물이 교육목적에 맞는 고유한 이름으로 불려진다.

동양대학교 캠퍼스는 이러한 외형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컴퓨터 분야 특성화 대학'답게 학생 1인당 교육용 PC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건물에 초고속 정보망과 함께 캠퍼스 내 무선 랜을 구축, i-캠퍼스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